

취임 1년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



“유통과정 3단계로 축소 농산물 안정 공급 최선”

“경제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은 철저한 계약체결을 통해 생산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들은 제대로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산다는 국민적 합의만 이룬다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고민이 많다. 최근에 대통령이 최근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내 직거래 장터를 찾아 “유통 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 개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국민이 유통구조 개선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집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17일 무안과 함께 현장지도 차 지방을 찾은 김 대표이사는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현장 중심의 발로 뛴 CEO를 지향하는 자신에게 “꼭해야 할” 아니 ‘반드시 해낼’ 미션을 준 셈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김 대표이사는 “대통령은 현 7단계인 농산물 유통단계를 최소 2단계(직거래 형태)로 끌어내린다는 의중인 것 같다. 궁극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농협이 거래 주체가 되는 3단계로 축소해 안정적 농산물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안을 늦어도 5월까지는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대표이사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축산물 유통 인프라 및 판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그 첫걸음으로 오는 6월 수도권에 근접한 안성 지역에 농식품물류센터를 준공한다. 오는 2015년까지 전국 5곳에 세워지는 물

류센터는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게 된다.

대도시 농협은 기존 153곳이던 직거래 장터를 올해 안에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이와 더불어 산지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농산물 구매 배달사업’도 시작한다.

그는 또 “공선출하회 조직 및 연합사업 물량을 대폭 늘리고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산물 도매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이사는 양과 가격 인상에 대해

는 것을 들었다.

그는 또 “올해 양과 계약재배 추진물량은 22만t으로 전년(19만t)보다 15% 확대해 전량 수매할 계획이고, 현재 17% 수준인 계약재배 비율을 2015년에는 30% 까지 확대해 양과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적정가격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 한 후 곧바로 제안, 올해부 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골목상권과의 상생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농협으로 변신시키고, 냉동밥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다지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 취지다.

김 대표이사는 자신을 ‘촌놈 중 성공한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양과 두자를 실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농협 말단 직원에서 시작해 245만명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여한도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한 것도 큰 덕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그가 방문한 현장은 국내 4만km, 해외 2만8000km로 총 6만 8000km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을 92회 왕복, 지구를 1.7바퀴 돋 것과 같다.

그는 “무엇보다도 농협 경제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한차례의 농산물 파동을 겪지 않은 게 다행이고, 성과라면 성과”라고 자평했다.

운이 좋았는지 상도 수상했다.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민경제 안정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 대표이사는 이를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가 열린 상황에서 농협이 협동조합들의 협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이 협동조합의 맘형으로서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을 돋고 새롭게 출범한 협동조합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협동조합 생태계가 성장하도록 도우는 과정에서 농협의 사업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만8000㎢ 누비며 판매농협 구현 앞장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 도매 역량 강화 골목상권과의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

“지난 7일 변산농협 산지유통센터 양파 선별장을 방문해 국산양과 수급동향을 점검했다”며 “최근 가락도매시장의 3월 평균 양과가격은 상품 kg당 1800원대로 전년기보다 3배, 평년기보다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양과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국내 저장양과 물량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으로 됐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 2월말 재고물량 8000t과 수입하기로 한 3만t를 금년산 햇양과 출하 이전인 3월중에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

정치권이 대형마트 규제를 와치면서 농협 유통사업도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 농업인 판로를 끌리려면 하나로마트를 더 기워야 하지만, 골목상권의 애로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혜답은 본업에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제대로 팔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가 제안했던 골목상권과의 ‘상생 프로젝트’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손잡고 중소 슈퍼에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 도시농협을 농산물 판매

광주신세계, 유신열 신임 대표이사 선임

④광주신세계는 17일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유신열 총괄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⑤광주신세계는 지난 15일 진행된 회계기준 2012년도 제18주 주주총회에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의잉여금 처분안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등을 통과시켰다.

이어 주주총회 이후 개최된 임시 경영이사회에서는 유신열 총괄임원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유 대표이사는 “지역 1번점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구현하겠다”며 “업(業)의 본질에 입각한 업무 프레임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혁신사업 및



역량의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 출생인 유 대표이사는 서강대를 나와 1989년 신세계에 입사, 신세계 경영지원실 사무국 과장을 시작으로 경영기획실 관리팀 과장, 기획관리팀장 등 그룹의 기획 및 재무 업무를 도맡아왔으며 신세계 그룹 내에서는 경영관리 분야에 정통한 핵심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자녀 교육 이렇게 하세요”

光銀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15일 오후 광주은행 본점에서 광주시교육청과 평소 직장 근무로 인해 학부모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워킹맘과 아버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가졌다.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2시간 동

안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광주은행 임직원 및 가족, 학부모 450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의한 교육평론가 이범 강사는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 보좌관 및 전 메가스터디 스타강사로 ‘새로운 교육 트렌드와 미래형 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최재호기자 lion@

북구, 첨단 창고형 할인점 건축 불허

광주시 북구가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첨단 2지구에 입점을 시도 중인 창고형 할인점 ‘VIC마켓’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주)가 지난 7일 신동면 860번지 일대에 신청한 창고형 할인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북구는 롯데쇼핑이 신청한 할인점은 중·대형 박스단위로 물품을 사는 도매점 성격이 강한 창고형 화물제 할인점으로 공산품과 농수축산·식료품이 일반 마트보다 10~30% 가량 저렴해 인접 지역 및 전남 도·소매업체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지 안팎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는 애초 건축·교통신의 시 반영된 주차장 진입부분 1차선 확보만으로는 교통 흐름 상 장애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1개 차선을 더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제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
www.LOTTEJTB.com

★ 신규대리점! OPEN!
하남점 062) 611-8875

★ 1577-6511
금남로점 062) 228-6644

★ 이달의 우수대리점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무안출발 북경 vs 장가계” 특가할인! 알찬여행 즐기세요!

329,000 원부터
매주 화요일, 금요일 출발
만리장성 케이블카 포함
부국해자세계 관광
3대 특식 제공
(특전 오리구이, 사브사르, 불고기)

장가계/천문산/원가계 4/5일
★ 무안 → 장가계 직항 전세기!

859,000 원부터
4/1~5/20 (월,금) 출발
전일정 준5성호텔 숙박
항공, 숟가락, 천문산, 벌어사지
천문동 (케이블카 탑승) 관광

“일본” 북큐슈 온천 여행 4일
★ 광주 → 부산항 수송비포함!

369,000 원부터
5/15 ★ 단하루!
벳부인 일찌빠 호텔 숙박
기아도 지역선 관광
NO TIP, 온천여행~
유류할증료 포함

“동서양의 만남” 터키 완전일주 8일
★ 국내선 2회 항공이동 포함~!

1,849,000 원부터
3/25,29, 4/2,5,9,15,19,22, 5/6,10,13,17,20~3/29, 4/22, 5/13,17,31 (출발정기)
터키 항공 직항 이용
이스탄불, 예레스, 이즈미르 관광
양的地步 특식 피르볼라 포함
한국 국내선 2회 항공이동

SIT 대회 참관 +36 명문골프 리운딩+시내관광*
2013 LPGA 롯데 챔피언십*

하와이 골프 침관 5일 4/19
[국내] 2,099,000 원부터 [해외] 2,399,000 원부터
최경리찰관관찰/36홀리더링/기아드림포함/대회기념증정
석기원상의 연주회 “대련 골프” 3일 1,199,000 원부터 5/17 출발 (온라인 예매)
현종일 연주회 “일본 다이센트리킹 & 관광” 4일 499,000 원 (온라인 예매) 6/6 출발 DBS크루즈 동해항
싱가폴/세트남/충북/충남 유류할증료 불포함
크루즈 1,390,000 원부터 4/1
싱가폴/세트남/충북/충남 보이저호 10일 1,990,000 원부터 3/22, 1년 1회 디너스 스마트, 쿠큐 호프
MSC 동부지중해 두바이 4/1~태래 크루즈 11일 4,790,000 원부터 4/26 5/10,30~
[해외] 쿠알라룸푸르/푸껫 레전드호 5일 3,690,000 원부터 3/26,29 4/7,9,12,14,16~
호주 뉴질랜드 남북섬 +모아이아섬 10일 3,690,000 원부터 3/23 4/3,6,13,17,20,21~
[해외] 인도 힐튼 힐스, 힐스토리 힐스, 힐스 힐스 5일 3,690,000 원부터 3/24 4/1,4,5,12,15,19,22~
[해외] 인도 힐튼 힐스, 힐스 힐스 5일 3,690,000 원부터 3/24 4/1,4,5,12,15,19,22~
[해외] 인도 힐튼 힐스, 힐스 힐스 5일 3,690,000 원부터 3/24 4/1,4,5,12,15,19,22~
[해외] 인도 힐튼 힐스, 힐스 힐스 5일 3,690,000 원부터 3/24 4/1,4,5,12,15,19,22~
[해외] 인도 힐튼 힐스, 힐스 힐스 5일 3